

# 『傷寒明理續論』 중 譫語의 8證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崔東洙 · 申榮日\*

## A Research on the Deliria speech of 『Sanghanmyeonglisoglon(傷寒明理續論)』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Choi Dong-su · Sheen Yeong-il

Aversion to wind is a feeling of cold when exposed to wind; aversion to cold is a feeling of cold. The distinction between aversion to wind and aversion to cold is ambiguous because in greater yáng disease the two terms seem to be used indiscriminately. It is, however, worth noting that "aversion to wind" does not occur in the lines presenting disease of the three yīn.

In this text, we render as "heat effusion" rather than "fever," since the Chinese term is somewhat wider in meaning than familiar English term. Heat effusion is associated with many conditions and occurs both in externally contracted disease and miscellaneous disease (雜病), disease due to causes other than external evils). In externally contracted disease of the three yáng channels, heat effusion is a manifestation of the struggle between right qì and evil qì; i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the presence of evil heat. In diseases of the three yīn, right qì is not strong enough to counter evil qì; hence heat effusion is absent, and instead only aversion to cold is present.

Sweating occurs in a variety of patterns.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spontaneous and night sweating. Spontaneous sweating(自汗)is so called because it occurs spontaneously without exertion. It has numerous causes. Night sweating(盜汗) is sweating during sleep that ceases on awakening.

Key Words: Deliria speech, SangHanYukSeo

## I. 緒 論

『傷寒明理續論』은 陶華<sup>1)</sup>의 末年 著作인 傷寒六書

\* 교신저자: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61) 330-3511, maggie@dsh.ac.kr

1) 陶華의 字는 尙文이고, 號는 節庵이며 餘杭人이다. 洪武 2年(1369年)에 태어나서 正統十年까지(1445年) 77歲를 生存하였다. 어려서부터 儒學을 공부하여 百家에 널리 通하였으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에게서 秘藏한 醫籍을 받고 軒岐의 醫術에 精通하였으며 傷寒論에 대해 研究精進하여 奧

가운데 맨 나중에 있는 것으로 漢代이전의 傷寒病의 證候와 脈象과 處方에 대하여 그의 醫學思想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論술이다. 그는 이 책에서 金代의 成無己가 저술한 『傷寒明理論』의 내용이 미비하

妙한 가치를 깨닫고 새로이 발명한 것이 많았다. 永樂年間(1403-1424)에 醫學訓科에 나아갔고, 宣德年間(1426-1435)에 벼슬에 올랐다. 陶氏는 일찍이 杭州에서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切脈에 精通하여 古法에 얽매이지 않고 證에 따라 새로운 處方을 創方하였으며, 奇異한 疾病이라도 손을 쓰면 바로 나왔기 때문에 '陶一帖'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다고 보아 서두에 傷寒三陰三陽脈證論, 陰陽虛實用藥寒溫辯, 六經用藥格法, 陰陽虛盛用藥寒溫辯, 三陰三陽脈證, 汗下溫正法, 傷風見寒傷寒見風脈證, 三陽合病, 太陽陽明併病 등의 총론적인 면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溫病의 범주에 속하는 春溫變熱, 痧, 風溫濕溫, 風濕中濕, 溫毒中喝을 추가하여 단지 50證候의 해설에 그친 『傷寒明理論』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傷寒明理續論』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는 傷寒論을 연구하면서 『傷寒全生集』 『傷寒六書』를 저술하였는데, 모두 王叔和의 編制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傷寒全生集』은 元 亨利 貞의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元에서는 傷寒의 특징 즉 察病法, 脈法, 合病, 標本등의 총론적인 면을 다루었고, 亨과 利에서는 三陽病에서 흔히 나타나는 證候인 發熱, 惡寒, 煩躁, 頭痛, 口渴, 蓄血 등에 대해 論述과 用藥을 제시하였고, 貞에서는 三陰病, 霍亂, 陰陽易 등의 證候를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어서 임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傷寒六書』는 『傷寒瑣言』, 『傷寒蒙秘』, 『殺車槌法』, 『傷寒證脈藥截江綱』, 『一提金』 및 『傷寒明理續論』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全生集에 비해 論述이 간략하여 후에 外感病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要點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중 『傷寒蒙秘』는 發熱, 頭痛, 汗出, 煩熱 등 70여 證候에 대하여 각각 鑑別, 治法, 治方을 자세히 논한 것이고, 『傷寒瑣言』은 傷寒論의 編制, 傷寒의 脈法, 用藥, 溫病 등 傷寒論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면에 대해 자세하게 論述하고, 아울러 諸方에서 새로운 處方에 대한 用例와 解說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殺車槌法』은 劫病法, 制藥法, 解藥法, 煎藥法 등 藥을 제조하는 방법과 그가 創方한 37종의 處方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一提金』은 六經病의 辨證法, 診脈法, 用藥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傷寒證脈藥截江綱』은 仲景先師의 治法이 石函에 보관된 遺芳嘉秘를 얻어 보고서 그가 임상에 적용하여 틀림이 없는 것들만을 모아 만든 것으로 傷寒의 原因, 日數에 따른 轉變原則, 病證의 관찰방법, 標本論治, 生死鑑別 및 婦人傷寒의 差異點을 논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傷寒明理續論』은 王叔和가 편제한 傷寒論의 條文에 따른 연구방법을 탈피하여 傷寒病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후를 중심으로 논한 許叔微의 『傷寒發微論72證候』와 成無已의 『傷寒明理論』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前人들의 論點이 비록 여러 증후에 대해서 논하였지만 상세하지 못한 것과, 비록 상세하긴 하나 다만 50證에 대해서만 究明한 것에 염두하고 저작한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 보고들은 바를 모아 分類하고 例를 넣고 斟酌損益하여 外感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과 특히 病證鑑別法, 溫病, 婦人傷寒 등의 면에서 傷寒溫病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傷寒明理續論』가운데 謔語의 8證候에 대하여 校勘 註釋 國譯 考察을 가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研究에 착수하였다.

## II. 研究方法

1. 原文은 黃瑾明, 傅錫欽 點校 人民衛生出版社의 『傷寒六書』 중 『傷寒明理續論』을 기준하였다.
2. 原文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傷寒論 條文은 脚注처리하고 찾기 쉽도록 뒤에 조문번호를 ( )로 제시하였다.
3. 註釋가운데 內經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장은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4.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현대화하였다.
5. 翻譯은 原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용구나 따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6. 題目에 알아보기 쉽도록 차례에 따라 章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였다.
7.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註釋에 '(00)', 引用文獻에 '『00』',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 Ⅲ. 本 論

#### 第1章. 讖語 鄭聲附

##### 【原文】

經에 曰邪氣盛則實이요 正氣奪則虛 故로 實則讖語<sup>(1)</sup>하고 虛則鄭聲<sup>(2)</sup>이라하니라 傷寒에 胃中熱盛하야 上乘於心하야 心爲熱胃 則神識昏迷하고 妄有所見而言也니 輕者는 睡中呢喃<sup>(3)</sup>하고 重者는 不睡亦語라 亦有讖語者하며 有獨語<sup>(4)</sup>者하며 有語言不休<sup>(5)</sup>者하며 有言亂<sup>(6)</sup>者하니 凡此見其熱之輕重也라

大抵熱入於胃하면 水潤屎燥하야 必發讖語로대 又有被火劫者하며 有亡陽者하니 名各不同이라 但氣短者는 死하고 脈自和則愈라 或喘滿과 氣逆而上奔과 自利柔脫而奪下는 皆爲逆也라

讖語者 脈洪數하고 大便閉하며 小便赤하고 手足溫에 與調胃承氣湯이요 胃實하야 讖語하고 身熱多汗하고 便難하며 或潮熱에 諸承氣湯을 選用之라

發汗多하야 亡陽讖語나 身自和는 不可下니 柴胡桂枝湯이요 下利讖語는 爲有燥屎니 脈不微細는 小承氣湯이요 利不止者는 不治라

三陽合病하야 讖語者가 脈滑實하고 身重하며 難而轉側하고 口中不仁하며 面垢遺尿는 不可汗下니 與白虎湯이라

傷寒에 大熱乾嘔하고 呻吟錯語<sup>(7)</sup>하며 不得眠엔 犀角解毒湯<sup>(1)</sup>이라

得病無熱이나 但狂言 煩躁不安 精采<sup>(8)</sup>不與人相當은 與五苓散二錢을 以新汲水<sup>(9)</sup>로 吐之則愈니 一法에 用猪苓湯이라

瘀血에 狂言讖語하고 漱水하며 大便黑色하고 小便多하며 身黃腹滿은 此爲當汗이어늘 不汗하야 蓄熱在裏니 輕者는 犀角地黃湯이요 甚者는 桃仁承氣湯 抵當丸이라

婦人이 熱入血室하야 晝靜夜譫 如見鬼狀하면 小柴胡湯이라

陽明病에 其人喜忘은 必有瘀血이니 抵當丸이라

鄭聲者는 重語也요 又爲不正之音也라 傷寒鄭聲은 如鄭衛之音<sup>(10)</sup>하야 不正也라 蓋因汗後에 若病人本音失而正氣虛 則鄭重하고 語不知高下하니 乃精氣奪之候也라 其脈微細 二便利는 用小柴胡湯이라

##### 【校勘】

1) 犀角解毒湯: 『傷寒全生集辨傷寒不眠例第十三』에는 ‘黃連解毒湯’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犀角解毒湯은 黃連解毒湯<sup>2)</sup>에 犀角을 加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 【註釋】

(1) 讖語(섬어): 陽明實證이나 溫邪가 神志를 擾亂하여 헛소리하는 것으로 實證이다.

(2) 鄭聲(정성): 正氣가 쇠약하여 중복해서 말을 하며, 말소리가 낮고 약하며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危重한 證候이다.

(3) 呢喃(니남):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4) 獨語: 귀신이나 헛것을 보고 말하듯 혼자 중얼거리는 말.

(5) 言不休: 말에 조리가 있고 없던 간에 끊임없이 계속 말을 하는 것.

(6) 言亂: 말에 조리가 없고 이것저것에 대하여 아무렇게 말하는 것.

(7) 錯語: 잠꼬대처럼 헛소리하는 것.

(8) 精采: 눈의 광채와 기상.

(9) 新汲水: 막 길어온 물.

(10) 鄭衛之音: 음란한 소리, 鄭과 衛는 春秋時代의 두 나라 이름으로 그 음악이 음란하여 민심을 어지럽혔다.

##### 【國譯】

2)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456. “黃連解毒湯: 治時疾三日已汗解 或因飲酒 復劇苦煩悶乾嘔口燥 呻吟錯語 不得臥 黃連三分 黃蘗半兩 黃芩一兩 梔子四枚劈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 水一盞半 煎取一湯盞 去滓服 未知再服進粥 以此漸差”

傷寒論에 ‘邪氣가 盛하면 實이요 正氣가 奪하면 虛니 故로 實하면 譫語하고 虛하면 鄭聲한다.’<sup>3)</sup> 하였다. 傷寒病에 胃中에서 熱이 盛하여 위로 心으로 올라가 心이 熱邪에 感冒하면 神識이 昏迷하고 헛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니, 가벼운 경우에는 잠자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심한 것은 잠을 자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 이러한 증후에는 譫語도 있는 반면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있으며, 말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으며, 어지럽게 말하는 것이 있으니 무릇 이러한 것은 熱의 輕重에 따라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熱이 胃로 들어가면 津液이 말라서 燥屎가 생겨 반드시 譫語證이 나타나는데, 또한 火劫으로 인한 것이 있으며, 亡陽으로 인한 것이 있으니 이름이 각각 다르다. 다만 호흡이 가빠지면 죽고 脈이 和緩하면 낫는다. 譫語證에서 或 喘滿하는 경우와, 氣가 逆上하면서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경우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질금질금 지리는 것은 모두 逆證이다.

譫語證에 脈이 洪數하고 大便을 보지 못하며 小便色이 붉고 手足이 따뜻한 경우에는 調胃承氣湯을 투여하고, 胃가 實하여 譫語證이 있고 몸에 熱이 나서 땀이 많으며 大便을 보기 어렵고 或 潮熱하는 경우에는 承氣湯에서 골라 투여한다.

發汗過多로 亡陽證이 생겨 譫語證이 생기거나 몸에 별다른 증후가 없는 것은 瀉下하면 안되니 柴胡桂枝湯을 투여하고, 下利하면서 譫語하는 것은 燥屎가 있으니 脈이 微細하지 않는 경우에는 小承氣湯을 투여하는데, 下利가 그치지 않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三陽經이 모두 병들어 譫語證이 있는데 脈이 滑實하고 몸이 무겁고 돌아눕지 못하고 입안이 자유흘지 못하며 얼굴에 때가 끼고 遺尿하는 경우에는 汗法과 下法을 쓰면 안되니 白虎湯을 투여한다.<sup>4)</sup>

傷寒에 大熱로 건구역질하고 呻吟하면서 헛소리 하며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犀角解毒湯<sup>5)</sup>을 투여한

다.

傷寒病에 熱이 없고 다만 미친 듯 소리치며 煩躁不安하고 똑바로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五苓散 二錢을 막 길어온 물로 먹여 토하게 하면 나으니 一法에는 豬苓湯을 투여한다.

瘀血로 狂言譫語하고 물로 입을 행구기만 하고 삼키지 못하며 大便이 검고 小便은 많이 보며 몸이 노랗고 腹滿하는 것은 마땅히 發汗해야할 것을 發汗하지 않아 裏部에 熱이 쌓인 것이니 가벼운 경우에는 犀角地黃湯<sup>6)</sup>을 투여하고, 심한 경우에는 桃仁承氣湯 抵當丸을 투여한다.

婦人이 邪熱이 血室로 들어가서 낮에는 잠잠하나 밤에는 귀신이 보이듯 譫語證이 있는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투여한다.<sup>7)</sup>

陽明病에 환자가 건망증이 심한 것은 반드시 瘀血이 있기 때문이니 抵當丸을 투여한다.<sup>8)</sup>

鄭聲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요 또한 바르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傷寒에 鄭聲은 鄭나라 衛나라의 말소리처럼 음란하여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대개 땀을 낸 후에 환자가 正氣가 虛하면 정상적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암전하며 말의 높낮이가 없어서 알아들을 수 없으니 精氣가 奪한 證候이다. 脈이 微細하고 大小便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考察】

譫語의 원인을 心臟에 邪熱이 침범한 것과 火劫이

3)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7. “夫實則譫語 虛則鄭聲重語也”  
4)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8.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5) 犀角解毒湯은 傷寒全生集辨傷寒不眠例第十三에는 ‘黃連解毒湯’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犀角解毒湯은 黃連解毒湯에 犀角을 加한 것이라고 본다.  
6)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455. “犀角地黃湯 治傷寒及溫病 應發汗而不發汗 內有瘀血 鼻衄吐血 面黃大便黑 此方主消化瘀血 兼治瘡疹出得太盛 以此解之 芍藥三分 生地黃半斤 牡丹皮去心一兩 犀角一兩屑如無以升麻代之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匕 水一盞半 煎至一盞 有熱如狂者加黃芩二兩 其人脈大來遲 腹不滿自言滿者 爲無熱更不用黃芩也”  
7)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19. “婦人傷寒 發熱 經水適來 晝日明了 暮則譫語 如見鬼狀者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 及上二焦 必自愈.”  
8)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30. “陽明證 其人喜忘者 必有蓄血 所以然者 本有久瘀血 故令喜忘 屎雖硬 大便反易 其色必黑 宜抵當湯下之.”

나 發汗過多로 胃府에 열이 쌓인 것으로 분류하고, 心臟에 邪熱이 침범한 경우 熱邪의 정도에 따라 讖語, 혼자 증얼거리는 것, 말을 쉬지 않고 하는 것, 어지럽게 말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니 正氣의 상태에 따라 承氣湯을 골라 치료해야 한다. 또한 讖語證에서 喘滿하는 경우와, 氣가 逆上하면서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경우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질금질금 지리는 것은 모두 逆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熱邪가 血分에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蓄血證과 婦人의 熱入血室證에도 讖語가 나타나니 전자는 犀角解毒湯 桃仁承氣湯 抵當湯으로, 후자는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 第2章. 小便不利 小便難附

### 【原文】

邪氣聚於下焦하여 結而不散이라가 甚則小腹硬滿而痛하니 此小便所以不通이라 大抵有所不利者行之는 所以滲泄<sup>(1)</sup>也라 若飲水過多한대 下焦蓄熱커니 或中濕發黃하여 水飲停留엔 皆以利小便爲先이요 惟汗後亡津液하여 胃汁乾과 與陽明汗多者는 則以利小便爲戒라 設或小便不利而見頭汗者는 乃爲陽脫關格<sup>(2)</sup>之疾矣라

飲水過多하고 下焦蓄血熱하여 小便不利에 脈浮者는 用五苓散이요 脈沈者는 猪苓湯이라

太陽病에 身黃 脈沈者는 猪苓湯이라 太陽病에 身黃 脈沈結 小腹硬 小便不利者는 爲亡血也니 五苓에 加茵陳이요 嘔而發熱하고 胸滿하며 心下怔忡<sup>(3)</sup>하고 小便不利者는 爲亡血也니 五苓에 加茵陳 茯苓이라

少陰病에 四逆 或小便不利하면 四逆散에 加茯苓이라

陽明病에 無汗 小便不利 心下懊憹<sup>(4)</sup>者는 身必發黃하니 五苓散에 加茵陳이라

經에 曰虛則小便難하고 陰虛者는 陽必溲之라하니 有膀胱受熱하여 致小便赤澀而不流利也라 又曰 雖不大便也 六七日이나 而小便少者는 但初硬後澹未定이

니 或硬이라도 攻之면 必澹이라 後小便多하고 屎定硬이라야 方可攻之라하니 乃胃中水穀不別하면 雖通而不能也라

陽明中風에 脈浮弦大하고 身黃鼻乾하며 氣短腹滿하고 潮熱時噦하며 胸脇痛하고 小便難엔 小柴胡에 加茯苓이라

太陽病에 小便利者 以飲水多하면 必有心下悸하니 茯苓白朮甘草湯이요 小便少者는 必裏急하니 猪苓湯이라

### 【註釋】

(1) 滲泄: 淡滲하는 약물로 水濕을 배출하는 방법.

(2) 關格: 小便不通을 關이라하고 嘔吐不止를 格이라하며, 小便不通과 嘔吐不止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關格이라한다. 또한 大便不通을 內關 小便不通을 外格이라하며, 大小便不通을 關格이라한다. 여기에서는 陰陽의 升降作用이 조절되지 않는 것을 통칭하는 말이다.

(3) 怔忡(정충): 중증의 心悸를 가리키며, 心忡 忡悸라고도 한다.

(4) 懊憹(오뇌): 심흉부에 열이 나면서 답답하며 안절부절못하는 증상이다. ※懊: 괴로워할 오. 憹: 괴로워할 뇌.

### 【國譯】

邪氣가 下焦에 쌓여 흩어지지 않다가 심해지면 小腹이 단단하고 더부룩하면서 아프니 이것이 小便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을 통하게 하려면 滲泄을 위주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 과다하게 물을 마셨는데 下焦에 熱이 쌓여 있거나 或 濕邪에 맞아 發黃하여 水飲이 停留한 것은 모두 利小便을 먼저 하고, 오직 發汗後 津液이 없어져 胃의 津液이 건조한 경우와 陽明病에 땀이 많은 경우에는 利小便을 삼가야 한다. 만약 小便이 不利한데 머리에만 땀이 나면 陽氣가 탈진되어 升降作用이 되지 않는 關格病이 된다.

과다하게 물을 마신 상태에서 下焦의 血分에 熱이

쌓여서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데. 脈이 浮한 것은 五苓散을 투여하고, 脈이 沈한 것은 豬苓湯을 투여한다.

太陽病에 몸이 노랗고 脈이 沈한 경우에는 豬苓湯을 투여한다. 太陽病에 몸이 노랗고 脈이 沈結하며 아랫배가 단단하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亡血證이니 五苓散에 茵陳을 加하여 투여하고, 구도와 熱이 나고 가슴이 그득하며 心下가 심하게 뛰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亡血證이니 五苓散에 茵陳 茯苓을 加하여 투여한다.

少陰病에 四肢가 逆冷하고 或 小便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四逆散에 茯苓을 加하여 투여한다.

陽明病에 땀이 나지 않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으며 心下가 울렁울렁 편안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發黃하니 五苓散에 茵陳을 加하여 투여한다.

『內經』에 ‘虛하면 小便을 보기 어렵고 陰精이 虛하면 陽邪가 반드시 모여든다.’<sup>9)</sup>라고 하니 膀胱이 熱을 받아 小便色이 붉고 걸끄러우면서 잘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비록 6,7일 동안 大便을 보지 못했으나 小便이 적은 것은 단지 대변이 처음만 단단하고 뒤에는 무를 것이니 或 단단하더라도 攻下하면 반드시 무르게 된다. 조금 지나서 小便이 많아지고 燥屎가 단단해져야 바로 攻下할 수 있다.’하니 바로 胃中의 水氣와 穀氣가 分別되지 않으면 비록 通하게 하더라도 능히 치료되지 못한다.

陽明中風에 脈이 浮弦大하고 몸이 노래지며 코가 마르고 숨이 가쁘며 腹滿과 潮熱이 있고 때로 딸꾹질하며 胸脇이 아프고 小便을 보기 어려운 것은 小柴胡湯에 茯苓을 加하여 투여한다.

太陽病에 小便이 잘 나오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心下가 두근거리게 되니 茯苓白朮甘草湯을 사용하고, 小便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랫배가 당길 것이니 豬苓湯을 투여한다.

【考察】

小便不利는 飲水過多 下焦蓄血하거나 濕邪로 인

한 發黃證에 水飲停留하여 발생하는 것이 많으니 대부분 五苓散 豬苓湯으로 치료하는데 發黃의 경우 茵陳을 가하여 투여한다. 여기에도 發汗過多로 인한 亡血證이나 陽明病의 땀이 많은 경우 津液이 건조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는 利小便을 경계해야한다.

第3章. 小便自利 小便數 遺溺附

【原文】

小便自利者는 爲津液漏滲하여 大便必硬하니 宜以藥微下之라 其陽明自汗者를 復發其汗하여 使津液內竭하면 屎雖硬이나 尤不可攻이니 縱使<sup>(1)</sup>大便難이라도 蜜導煎<sup>(2)</sup>導之라 太陰은 當發身黃하니 其小便自利者 則濕熱內泄하여 不能發黃이라 有血證 則腹急而如狂하고 腎與膀胱虛 則不能約制水液하니 二者는 皆小便自利라 若腎與膀胱虛而挾熱하고 熱則水道澀하여 則小便不快 故로 澀淋而數起也라 若自汗而小便數者는 雖有表證이나 又不可用桂枝니 謂亡走津液也라

太陽病에 小便自利한대 以飲水多하여 心下悸엔 茯苓桂枝 茯苓甘草湯이요 太陽에 自汗하고 四肢拘急하며 心煩하고 微惡寒하며 脚攣急하고 小便數한대 誤服桂枝湯하여 得之便厥엔 與甘草乾薑湯 甘草芍藥湯이라

脈浮自汗하고 小便數하며 胃不和하고 謔語者엔 少與調胃承氣湯이요 陽明에 脈浮而澀하면 浮則胃氣強이요 澀則小便數이니 浮澀相搏하면 大便則難하고 其脾爲約<sup>(3)</sup>하니 宜麻仁湯<sup>1)</sup>이라

少陰에 四逆하고 小便自利하며 或色白은 爲虛寒이니 四逆湯 或眞武湯 去茯苓이요 既吐且利한대 小便復利而大汗出하고 下利清穀하며 內寒外熱하고 脈浮欲絕者엔 四逆湯이라

【校勘】

1) 麻仁湯: 『傷寒論辨陽明病脈證并治』에는 麻子仁丸으로 되어 있으니 옳다.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 124.



陽俱緊하고 口中氣出하며 脣口乾燥하고 蹇臥<sup>(3)</sup>足冷하며 鼻中涕出하고 舌上滑胎者는 勿妄治也라 到七八日以來에 其人微發熱하고 手足溫者는 此爲欲解요 或七八日已上에 反大發熱者는 此爲難治라 設使惡寒者는 必欲嘔也니 小柴胡湯 加生薑이요 腹內痛者는 必欲利也니 理中湯이라

太陽을 誤下하야 胃中空虛하고 客熱動膈하야 懊懣하고 舌胎엔 梔子豉湯이라

少陽病에 脇下硬滿하고 不大便而嘔하며 舌上白胎엔 小柴胡湯이라

陽明病에 舌上生胎는 五苓散이요 舌黃者는 當下之라 金匱要略에 曰舌黃未下者는 下之면 黃自去라하니라

臟結<sup>(4)</sup>者는 臟氣秘結而不流布也라 一息不運하면 機緘<sup>(5)</sup>窮이요 一呼不續하면 霄壤<sup>(6)</sup>判이니 臟其可結乎아 外證은 如結胸狀이나 但欲食如故 時時下利하니 爲異耳요 其脈寸浮關沈而緊하고 陰筋引臍腹俱痛이 是也라 病人이 脇下素有痞한대 連臟結하고 無陽證하며 不往來寒熱하야 其人反靜하고 舌上胎滑者는 不可攻也니 刺關元이요 灸之亦可라 仍與小柴胡湯 加生薑이라

【註釋】

- (1) 胎: 苔와 같다.
- (2) 刑: 相克을 당한다는 뜻이다.
- (3) 蹇臥: 正氣가 虛하여 몸을 쭉 펴지 못하고 오그리고 자는 것.
- (4) 臟結: 藏結이라고도 하며 臟氣가 불안정하고 陰陽이 가로막혀 陽氣가 敷布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大便不通이니 위급한 증후이다.
- (5) 機緘: 機는 시작의 의미이고 緘은 끝의 의미로 陰陽을 말한다. 緘: 封也, 봉할 함.
- (6) 霄壤: 天地. 霄: 하늘 소. 壤: 땅 양.

【國譯】

傷寒論에 ‘혀에 舌苔가 생기는 것은 丹田에는 熱

이 있고 胸中에는 寒이 있기 때문이다.’라 하니 寒氣가 바로 裏部에 傳入한 것을 말한다. 혀는 心의 기능이 나타나는 곳이므로 南方火에 응하고 色이 紅色이다. 邪氣가 表에 있으면 舌苔가 없고, 邪氣가 裏部로 들어가 津液의 運行을 막으면 혀에 苔가 생기면서 미끄럽고, 熱氣가 점점 깊어지면 舌苔가 燥澀해지고, 熱이 胃部에 모이면 舌苔가 노래진다. 만약 중간중간에 黑色이 보이면 熱이 이미 甚한 것이니 病이 危篤한 것이다. 內經에 ‘무릇 熱病에 口가 마르고 舌色이 黑色이 되면 죽는다.’라 하니 이는 腎水가 心火를 지나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陰陽脈이 모두 緊하고 口中에서 穢氣가 나며 口가 乾燥하고 오그리고 누우며 발은 차고 瘧이 나며 舌苔가 滑한 것은 辛중하게 치료해야 한다. 7, 8일이 되어서 약간 發熱하고 手足이 따뜻한 것은 下하야 하는 것이요, 或 7, 8일 이상 도리어 發熱이 심한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만약 惡寒證이 있으면 반드시 구역증이 날 것이니 小柴胡湯에 生薑을 加하여 투여하고, 腹部 안에서 痛證이 있는 것은 반드시 下利하려는 것이니 理中湯을 투여한다.

太陽病을 잘못 瀉下하여 胃中이 허약하고 熱邪가 膈部를 침범하여 心中이 懊懣하고 舌苔가 생기는 경우에는 梔子豉湯을 투여한다.<sup>14)</sup>

少陽病에 脇下가 그득하고 단단하며 大便을 보지 못하면서 嘔證이 있고 舌苔가 생기는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사용한다.

陽明病에 舌苔가 생기는 것은 五苓散을 사용하고, 舌苔가 黃色인 것은 瀉下하야 한다. 『金匱要略』에 ‘舌苔가 黃色이며 大便이 나오지 않는 경우 瀉下시키면 黃苔가 저절로 없어진다.’<sup>15)</sup>라고 하였다.

臟結은 臟腑의 기운이 울결되어 제대로 流布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번이라도 호흡이 제대로 運行하지

14)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8. “陽明病 脈浮而緊 咽燥 口苦 腹滿而喘 發熱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 若發汗則躁 心憤憤 反譫語 若加溫針 必怵惕 煩躁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 心中懊懣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

15) 成无己. 仲景全書金匱要略. 서울. 大成文化社. 1989. p. 383.

못하면 체내의 음양이 막혀 위태롭게 되고 한번이라도 호흡이 이어지지 않으면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멀어져 나뉘니 臟結이 되지 않는가? 外證은 結胸의 형태와 같으나 다만 예전처럼 먹고자하며 때때로 下利하는 것이 다르고, 寸脈은 浮하고 關脈은 沈하면서 緊하며 陰筋에서 아랫배까지 당기면서 아픈 것이 이것이다. 환자가 본래 脇下에 痞證이 있는데 안으로 장부에 까지 영향을 미쳐 당기고 뭉치며 陽證도 없고 寒熱이 왕래하지 않아 도리어 安전하며 舌苔가 滑한 것은 攻下하면 안되니 關元을 刺鍼하거나 뜸을 뜨는 것도 좋고, 바로 이어서 小柴胡湯에 生薑을 加하여 사용한다.

## 【考察】

外感病에서 나타나는 舌苔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白苔	苔薄	欠潤	邪襲肺衛	銀翹散 桑菊飲	
		乾燥	表邪未解 津液已傷	麥門冬蘆根汁	
	苔厚	潤	粘膩	濕與熱搏 濁邪上犯	三仁湯 加減正氣散
			苔膩舌絳	濕遏熱伏	犀角滑石茯苓皮
			苔滑膩如積粉舌紫絳	濕熱穢濁鬱伏募原	達原飲
			白霉苔	穢濁偏盛 胃氣衰敗	雷氏芳香化濁法
		燥	白滑苔	寒涼傷中 中氣虧乏	理中湯
			白厚乾燥	胃燥津傷 脾濕未化	滋潤藥加甘草
			白砂苔	邪熱化燥入胃	承氣湯
			白碱苔	胃中宿滯 穢濁鬱伏	承氣湯
黃苔	潤澤	黃白相兼	初入氣分 表邪未解	銀翹散	
		薄黃不燥	初入氣分 津液已傷	梔子豉湯	

黑苔	黃濁	濕熱痰濁 結于胸皖	小陷胸湯 枳實	
		黃膩	濕熱內蘊 濕熱俱盛	王氏連朴飲
	乾燥	薄黃而乾	初入氣分 津液已傷	涼膈散
		黃燥苔	陽明熱盛	白虎湯 合五汁飲
		老黃苔	熱結臟腑	調胃承氣湯
		黃厚乾燥	中焦濕濁 津液已傷	枳實導滯湯
	潤澤	苔黑如煙煤隱隱而潤	中陽不足 陰寒漸生	甘溫扶中
		遍舌黑潤	溫病兼痰濕	宜溫化痰飲
		黑苔滑潤舌質不紅	濕溫後期 濕勝陽微	眞武湯
	乾燥	黑苔焦燥起刺	陽明腑實 腎陰耗竭	調胃承氣湯
黑苔乾燥甚或焦枯		腎陰耗竭	黃連阿膠湯	
舌苔乾黑舌質淡白		濕溫後期 氣墜血脫	獨參湯 參附湯	
苔如煙煤隱隱而乾		津液耗傷	甘寒益胃	

표 1 外感病에서 나타나는 舌苔

## 第5章. 咽痛

## 【原文】

咽喉不利하고 或痛或癢하여 不可納食은 皆毒氣上衝所致라 經에 曰太陽病 下之로대 脈緊者는 必咽痛이라하니 以太陽之邪搏於少陰也니 少陰之脈이 循喉嚨 夾舌本일새라

少陰咽痛에 脈浮遲 厥冷 或吐利도 亦屬少陰하니 竝不可汗下요 用桔梗湯 豬膚湯이라 甚者는 半夏散

通脈四逆湯 去芍藥 加桔梗이요 汗不止엔 藁本 溫粉<sup>(1)</sup> 撲之요 咽中生瘡 不能言語 聲不出者는 苦酒湯이라

若傷寒 六七日 大下後에 寸脈沈遲하고 尺脈不至 하며 咽喉不利하고 唾血膿하며 手足厥하고 利不止者는 難治니 宜麻黃升麻湯이라

腎傷寒<sup>(2)</sup> 一證은 乃非時暴寒伏於少陽之經이라 頭痛 腰痛하고 脈微弱하며 初咽痛以傷寒이라가 後必下利 하니 咽痛엔 半夏桂枝湯即半夏散이요 利엔 四逆湯이라

陽毒咽痛은 見發斑條하니 咽中閉塞은 烏扇湯<sup>(3)</sup>이요 口瘡赤爛은 蜜浸黃栢嚙<sup>(4)</sup>이요 咽痛甚者는 升麻六物湯이라

【註釋】

(1) 溫粉: 白朮 蒿本 川芎 白芷 各等分 곱게 가루 내고 米粉三兩을 잘 섞어서 몸 전체에 맘을 흡수하도록 잘 두드려준다. 『類證活人書卷十三』

(2) 腎傷寒: 계절에 맞지 않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寒邪가 인체에 침범하여 少陰經에 잠복하였다가 10-30일에 발병하는 것을 말한다.

(3) 烏扇湯: 烏扇은 射干의 별명. 射干湯 射干二兩 半夏五兩 洗 杏仁三兩去皮尖雙仁炒 生薑四兩炮 甘草二兩炙 紫苑二兩 肉桂二兩 枳實二兩炙 當歸二兩 橘皮二兩 獨活二兩 麻黃二兩去節湯泡焙稱 추말하여 매번 五錢을 물 一盞半에 넣고 80%정도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리고 따뜻하게 복용한다. 『類證活人書卷十七』

(4) 嚙: 입에머금을 금.

【國譯】

咽喉가 不利하고 或 아프거나 가려워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모두 毒氣가 上衝한 까닭이다. 傷寒論에 ‘太陽病을 瀉下시켰는데 脈이 緊한 경우에는 반드시 咽痛한다.’고 하였으니 太陽의 邪氣가 少陰으로 침범한 것이니 少陰의 脈이 喉嚨을 따라 舌本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少陰病에 咽痛하고 脈이 浮遲하며 사지가 厥冷하

고 或 吐利하는 것도 또한 少陰에 속하니 汗法과 下法을 쓰면 안되니 桔梗湯 豬膚湯을 투여한다. 심한 경우에는 半夏散 通脈四逆湯에 芍藥을 去하고 桔梗을 加하여 투여하고, 맘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藁本 溫粉<sup>(1)</sup>으로 두드려주고, 咽中에 瘡가 발생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가 안나오는 경우에는 苦酒湯을 투여한다.

傷寒病 6, 7일에 크게 瀉下한 後에 寸脈은 沈遲하고 尺脈은 되지 않으면서 咽喉가 不利하고 血膿을 뱉으며 手足이 厥冷하고 下利가 그치지 않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麻黃升麻湯을 투여한다.<sup>(17)</sup>

腎傷寒은 계절에 맞지 않은 갑작스런 寒邪가 少陰經에 잠복된 것이다. 이 때는 頭痛과 腰痛이 있고 脈이 微弱하며 처음에는 傷寒으로 목구멍이 아프다가 뒤에 반드시 下利하니 咽痛에는 半夏桂枝湯(即半夏散)을 투여하고, 下利에는 四逆湯을 투여한다.

陽毒으로 인한 咽痛은 發斑 條에 나오니 咽中이 閉塞한 경우에는 烏扇湯(射干湯)<sup>(18)</sup>을 투여하고, 口瘡이 문드러져 벌겍게 된 것은 黃栢을 담갔던 꿀을 입에 머금게 하고, 咽痛이 심한 것은 升麻六物湯<sup>(19)</sup>을 투여한다.

第6章. 頭眩

【原文】

16)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p. 306-307. “溫粉方 白朮 蒿本 川芎 白芷 各等分 右搗羅爲細末一兩 入米粉三兩和之 粉撲周身止汗 無蒿本亦得 若汗已出後盡劑服 汗多亡陽 遂逆惡風煩躁不得眠也”

17)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42. “傷寒六七日 大下後 寸脈沈而遲 手足厥逆 下部脈不至 咽喉不利 唾膿血 泄利不止者 爲難治 麻黃升麻湯主之.”

18)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431. “射干湯 治初夏秋月暴雨冷 及天行暴寒 其熱喜伏於內 咳嗽曲折不可得 氣息 喉啞失聲 乾嗽無唾 喉中如哽 射干二兩 半夏五兩 洗 杏仁三兩去皮尖雙仁炒 生薑四兩炮 甘草二兩炙 紫苑二兩 肉桂二兩 枳實二兩炙 當歸二兩 橘皮二兩 獨活二兩 麻黃二兩去節湯泡焙稱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匕 水一盞半 煎至八分 去滓溫服”

19)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升麻六物湯 治陽毒發狂而喘 升麻中 大青上 梔子上 杏仁中 黃芩 蔥白 水煎服” 辨傷寒發狂例第十二.”

少陽居表裏之間하니 表邪傳裏하면 表中陽虛 故로 頭眩也요 又有發汗吐下後而眩者도 亦陽虛所致也라 若少陰病에 下利止而頭眩 時自冒者는 此虛極而脫이요 而風家亦有眩者하니 風主運動故也라 其或諸逆한대 發汗劇者면 言亂目眩而死也라

太陽病을 若下之하고 因復發汗하여 以此表裏俱虛하면 其人必眩冒하니 冒家는 汗自出而愈라

陽明病에 但頭眩하고 不惡寒하며 故能食而咳는 茯苓白朮甘草桂枝湯이라

少陽之爲病은 口苦 咽乾 目眩이니 小柴胡湯이라

太陽病을 發汗이나 汗出不解하고 其人仍發熱하고 心下悸하며 頭眩하고 身瞤動하며 振振欲擗地는 眞武湯이라

吐汗下後에 虛煩하고 脈微沈緊하며 心下悸하고 脇下痛하며 氣上衝咽喉하고 眩冒身搖하며 筋脈動惕이라 久而成痿는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이요 痿는 用瓜蒌湯이라

#### 【國譯】

少陽은 表裏의 사이에 있으니 表邪가 裏部로 傳變하면 表의 陽氣가 虛해지는 가답에 頭眩하게 되고, 또한 汗 吐 下後에 頭眩하는 것도 陽虛로 되기 때문이다. 少陰病에 下利가 그쳤는데 頭眩하고 때로 스스로 머리에 뭉가를 둘러쓴 듯한 것은 陽氣가 심하게 빠진 것이요, 風家도 또한 目眩이 있으니 風이 運動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或 諸逆證에 發汗을 심하게 하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이 아찔하면서 죽는다.

太陽病을 瀉下하고 다시 發汗하여 表裏가 모두 虛해지면 환자는 반드시 어지럽고 머리에 뭉가를 뒤집어 쓴 것 같으니 鬱冒한 증상은 땀이 저절로 나면서 풀린다.

陽明病에 다만 어지럽고 惡寒이 없으며 예전처럼 밥은 잘 먹고 기침하는 경우에는 茯苓白朮甘草桂枝湯을 투여한다.

少陽病은 口苦 咽乾 目眩하니 小柴胡湯을 투여한

다.

太陽病을 發汗하였으나 땀이 났는데도 증상이 풀리지 않고 환자가 계속 熱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지럽고 몸이 파르르 떨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眞武湯을 투여한다.

吐 汗 下後에 虛煩하고 脈이 약간 沈緊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脇下가 아프며 氣가 咽喉로 치밀어 오르고 어지러워 몸을 가누지 못하며 筋脈이 떨리다가 痿證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을 투여하고, 痿證은 瓜蒌湯<sup>20)</sup>을 투여한다.

## 第7章. 鼻衄

### 【原文】

經絡熱盛하여 迫血妄行하여 出於鼻者가 爲衄血也라 是雖熱이요 其邪尤在經이니 然이니 亦不可發汗이라 經에 曰以桂枝麻黃治衄은 非治衄也라하니 乃欲散其經中邪氣耳면 衄血故爲欲解라 若衄不止而頭汗出其身無汗 及發熱 汗不至足者는 又爲惡證이니 當明辨之라

太陽證衄血과 及服桂枝湯後致衄者는 爲欲解也니 屬犀角地黃湯이요 衄不止엔 茅花湯이요 無汗能食者는 卽欲衄이니 黃芩湯이라

衄家는 不可發汗이니 汗出이면 必額上陷하고 脈緊急하며 直視不能盼<sup>(1)</sup>하고 不得眠하니 芍藥地黃湯이라

陽明病에 渴欲漱水不嚥者는 必衄이니 黃芩芍藥湯이라

不因下而自利加衄者는 麻黃升麻湯이요 脈浮大하고 欲發熱하며 下利하고 鼻衄乾嘔者는 黃芩芍藥이요 衄에 煩而復渴欲飲水하고 水入卽吐는 先服五苓散하고 次服竹葉石膏湯이라

20)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424. “栝樓根湯治風溫加渴甚者 栝樓根三分 石膏二兩 人參半兩 防風半兩 甘草半兩 炙 葛根一兩半生用乾者只三錢 右剉如麻豆大 每服抄五錢匕 用水一盞半 煎至一中盞 去滓溫服.”

少陰病에 但厥無汗한대 強發之하면 必動其血하야  
或從口鼻吐나 或自目出을 名下厥上竭이라 爲難治니  
當歸四逆湯하고 仍灸太谿 三陰交 湧泉이라 一法에  
用黑錫丹이라

【註釋】

(1) 昤: 흘겨볼 헤.

【國譯】

經絡에 熱이 盛하여 竅박받은 血이 妄行하여 코로  
나오는 것이 衄血이다. 이것이 비록 熱證이고 邪氣가  
經絡에 있지만 發汗해서는 안된다. 傷寒論 成无己注  
에 '桂枝湯 麻黃湯으로 코피를 치료하는 것은 鼻衄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 하니 바로 經  
脈 中에 있는 邪氣를 흠어지게 하면 衄血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 만약 코피가 그치지 않고 머리에는 汗  
이 나는데 몸에는 나지 않으며 發熱하고 汗이 다리까  
지 나지 않는 것은 예후가 좋지 못하니 마땅히 명확  
하게 구별해야한다.

太陽證의 衄血과 桂枝湯 복용한 후 코피가 나는  
것은 풀리고자 하는 것이니 犀角地黃湯<sup>21)</sup>을 투여하  
고, 코피가 그치지 않는 것은 茅花湯<sup>22)</sup>을 투여하고,  
汗이 나지 않고 能食하는 것은 衄血證이 생기려는 중  
후이니 黃芩湯을 사용한다.

衄血證에는 發汗시키서는 안되니, 發汗하면 반드  
시 이마가 움푹 들어가며 脈이 緊急하고 눈동자를 굴  
리지 못하며 잠을 자지 못하니 芍藥地黃湯<sup>23)</sup>을 투여  
한다.

陽明病에 渴證으로 물을 마시려 하나 삼키지 못하

는 것은 반드시 衄血證이 생기려 하는 것이니 黃芩芍  
藥湯<sup>24)</sup>을 투여한다.

下利하지 않았는데 自利하면서 코피가 나는 경우  
에는 麻黃升麻湯을 투여하고, 脈이 浮大하고 熱이 나  
려고 하며 下利하고 鼻衄 乾嘔하는 경우에는 黃芩芍  
藥湯을 투여하고, 鼻衄에 煩하면서 渴證으로 물을 마  
시고자 하는데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하는 경우에는 먼  
저 五苓散을 복용하고 다음에 竹葉石膏湯을 투여한  
다.

少陰病에 厥證만 있고 汗이 나지 않는데 역지로  
發汗시키면 반드시 血이 요동하여 입이나 코 或 눈에  
서 피가 나니 下厥上竭證이라 한다. 이것은 치료하기  
어려우니 當歸四逆湯을 사용하고, 바로 太谿 三陰交  
湧泉에 뜸을 뜬다. 一法에는 黑錫丹<sup>25)</sup>투여한다고 하  
였다.

第8章. 吐血

【原文】

諸陽受熱하야 其邪在表한대 當汗不汗하야 致使熱  
毒入臟하야 積瘀於內하면 遂成吐血이라 凡見眼閉目  
紅 神昏語短 眩冒迷妄 煩躁漱水 狂驚譫語 鼻衄唾紅  
背冷足寒 四肢厥冷 胸腹急滿 大便黑利 小便頻數이  
皆瘀血證也니 不必悉具요 但見一二라도 便作血證主  
張이라 初得此病에 急宜用藥이니 至於陸續<sup>(1)</sup>不已하  
야 經數時而腹痛者는 此又難於料理也라

經에 日服桂枝湯吐者 其後必吐膿血이라하니 犀角  
地黃湯이요 大下後에 寸脈沈遲 尺脈不至 咽喉不利

21)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 455. "犀角地黃湯 治傷寒及溫病 應發汗而不發汗 內有瘀血 鼻衄吐血 面黃大便黑 此方主消化瘀血 兼治瘡疹出得太盛 以此解之 芍藥三分 生地黃半斤 牡丹皮去心一兩 犀角一兩屑如無以升麻代之 右剉如麻豆大 每服五錢匕 水一盞半 煎至一盞 有熱如狂者加黃芩二兩 其人脈大來遲 腹不滿自言滿者 爲無熱更不用黃芩也"

22) 朱肱. 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451. "茅花湯 治衄血不止 茅花一大把 水三盞 煎濃汁一盞 分作二服卽差 如無花以根代之"

23) 犀角地黃湯이다. 外臺秘要-卷二

24) 劉河間. 河間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460. "黃芩芍藥湯 治泄痢腹痛或後重身熱 久而不愈 脈洪疾者及下痢膿血稠黏 黃芩 芍藥 各一兩 甘草五錢 右爲麤末 每服半兩 水一盞半煎至一盞 瀘清溫服 無時 如痛則加桂少許."

25)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202. "黑錫丹 沈香鎊 附子炮去皮臍 胡蘆巴酒浸炒 陽起石研細水沸 茴香舶上者炒 破故紙酒浸炒 肉豆蔻麵裹煨 木香 各一兩 肉桂去皮只須半兩 黑錫去滓稱 硫黃透明者結砂子 各二兩 右用黑蠶 或新鐵銚內 如常法結黑錫 硫黃砂子 地上出火毒 研令極細 餘藥並杵羅爲細末 都一處和勻入研 自朝至暮 以黑光色爲度 酒糊圓如梧桐子大 陰乾 入布袋內 擦令光瑩 每服三四十粒 空心薑鹽湯或棗湯下 婦人艾醋湯下."

唾膿血者는 麻黃升麻湯이라 此有兩證하니 一陽毒이요 一陰毒이니 陽毒엔 用升麻湯이요 陰毒엔 用甘桔湯 加半夏生薑이라

血熱者는 黃連阿膠湯 地榆栝皮湯 三黃瀉心湯이요 脈浮發熱한대 反灸之하면 必咽燥吐血하니 救逆湯이요 咽喉閉塞엔 不可發汗이어늘 發汗 則吐血 氣欲絶 手足厥冷 蹠臥不能自溫하니 當歸四逆湯이라

#### 【註釋】

(1) 陸續: 끊임없이 계속하다.

#### 【國譯】

모든 陽經이 熱邪를 받아 邪氣가 表에 있는 경우에는 發汗해아 하는데 發汗하지 않아 熱毒이 臟으로 들어가 내부에 쌓이면 바로 吐血한다. 무릇 눈이 빨강고 감기는 경우, 정신이 혼미하여 말을 못하는 경우, 아찔하고 둘러쓴 것 같아 혼미한 경우, 煩躁하여 물을 마시고자 하나 삼키지 못하는 경우, 미치고 놀라 譫語하는 경우, 코피가 나고 침에 피가 보이는 경우, 등과 발이 모두 차가운 경우, 四肢厥冷, 胸腹이 갑자기 그득한 경우, 검은 大便을 보는 경우, 小便을 자주 보는 경우가 모두 瘀血證이니 반드시 다 나타나지 않고 한두 증후만 나타나도 바로 血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病을 처음 얻었을 때는 급히 藥을 써야하니 吐血이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아 오랜 시간을 경과 하여도 腹痛하는 것은 또한 치료하기 힘들다.

傷寒論에 ‘桂枝湯을 복용하고 吐하는 자는 뒤에 반드시 膿血을 吐한다.’라 하니 犀角地黄湯을 사용하고, 크게 瀉下시킨 후에 寸脈이 沈遲하고 尺脈이 뛰지 않아 咽喉가 不利하고 침에 膿血이 섞여 있는 것은 麻黃升麻湯을 사용한다.<sup>26)</sup> 이것에는 두 證候가 있으니 하나는 陽毒이요 하나는 陰毒이니 陽毒에는 陽毒升麻湯<sup>27)</sup>을 투여하고, 陰毒에는 甘桔湯<sup>28)</sup>에 半夏

生薑을 加하여 투여한다.

血熱로 인한 것에는 黃連阿膠湯 地榆栝皮湯 三黃瀉心湯을 사용하고, 脈이 浮하고 熱이 나는데 도리어 땀을 뜨면 반드시 목구멍이 마르고 피를 토하니 救逆湯<sup>29)</sup>을 투여한다. 咽喉가 閉塞한 것은 發汗시키면 안 되거늘 發汗하면 吐血하고 氣가 끊어지려 하며 手足이 厥冷하고 손발을 오그리고 잠을 자며 몸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으니 當歸四逆湯을 투여한다.<sup>30)</sup>

## 第9章. 心悸

#### 【原文】

心悸者는 築築然<sup>(1)</sup>動하고 怔忡<sup>(2)</sup>不能自安者 是也 其證有二하니 一者氣虛요 一者停飲이라 氣虛者는 陽氣內弱하야 心中空虛而爲悸하며 又有汗下之後 正氣內虛에도 亦令人悸하니 與氣虛而悸者는 則又甚也니 法當定其氣悸也라 其停飲者는 由飲水過多하야 停留心下하면 心火畏水하야 不能自安而爲悸也니 治法은 必先分水氣라 雖有餘邪라도 亦先治悸라야 免使水氣散走而成他證也라

傷寒二三日에 心中悸而煩은 小建中湯이라 經에 云先煩而悸者는 此爲熱이요 先悸而煩者는 此爲虛니 故로 宜建中湯이라하니라 太陽病에 小便利者는 以飲水多 故로 心下悸하니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이요 小便

이 盛하면 大靑과 黃連을 추가한다.

28)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辨傷寒咽痛例第十四.  
29) 吳瑭.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 18. “救逆湯方鎮攝法 卽於加減復脈湯內去麻仁, 加生龍骨四錢, 生牡蠣八錢, 煎如復脈法. 脈虛大欲散者, 加人參二錢.”

\*加減復脈湯方甘潤存津法 炙甘草六錢 乾地黄六錢, 按地黃三種, 用法, 生地者, 鮮地黄未晒乾者也, 可人藥煮用, 可取汁用, 其性甘涼, 上中焦用以退熱存津; 乾地黄者, 乃生地晒乾, 已爲丙火煉過, 去其寒涼之性, 本草稱其甘平; 熟地, 製以酒與砂仁, 九蒸九晒而成, 是又以丙火丁火合煉之也, 故其性甘溫. 奈何今人悉以乾地黄爲生地, 北人並不知世有生地, 僉謂乾地黄爲生地, 而曰寒涼, 指鹿爲馬, 不可不辨. 生白芍六錢 麥冬五錢, 不去心 阿膠三錢 麻仁三錢 水八杯, 煮取八分三杯, 分三次服. 劇者, 加甘草至一兩, 地黃白芍八錢, 麥冬七錢, 日三夜一服. 溫病條辨風溫 溫熱 溫疫 溫毒 冬溫

30)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44. “手足厥寒 脈細欲絶者 當歸四逆湯主之”

26)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43. “傷寒 六七日 大下後 寸脈沈而遲 手足厥逆 下部脈不至 咽喉不利 唾膿血 泄利下重者 爲難治 麻黃升麻湯主之”  
27)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辨傷寒發狂例第十二에 기재된 처방으로 發斑狂言 下利吐血 咽喉痛 에 사용하며 약물구성은 犀角, 升麻, 射干, 桔梗, 甘草로 구성되고 斑毒

少者는 必裏急하니 猪苓湯이라

陽明病에 壯熱來往하고 心下悸하며 小便不利하고 心煩喜嘔엔 小柴胡湯이라

太陽病을 發汗過多하여 其人叉手自冒하고 心下悸 欲得按者엔 桂枝甘草湯이라

發汗後에 其人臍下悸는 欲作奔豚이니 茯苓桂枝白朮甘草湯<sup>1)</sup>이라

太陽病에 發汗不解하여 仍發熱 心下悸 頭眩 肌體 瞶動 振振欲擗地엔 眞武湯<sup>2)</sup>이라

少陽病에 耳聾目赤 胸滿而煩한대 妄加汗下 則悸 而驚하니 與小建中湯이요 有熱者는 小柴胡湯이라

少陰病에 四逆 其人或悸는 四逆散 加桂枝요 心下 有水氣 厥而悸는 當先治水니 茯苓甘草湯이요 不然하고 水入胃中하면 必不利也라

傷寒에 脈結代<sup>4)</sup> 心動悸는 炙甘草湯이라

【校勘】

1) 茯苓桂枝白朮甘草湯: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中』에는 ‘茯苓桂枝甘草大棗湯’으로 되어 있다.

2) 眞武湯: 『傷寒論辨太陽病脈證并治中』에는 ‘茯苓桂枝白朮甘草湯’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築築然: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양.

(2) 怔忡(정충):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양.

(3) 奔豚(분돈): 氣가 아랫배부터 치솟아 胸脘部와 咽喉로 치받아 腹痛 惡寒發熱 咳逆 骨疼 少氣 等症이 발생하는 것이다.

(4) 脈結代: 結脈은 脈이 遲하거나 緩하게 박동하다가 때로 한번 정지하고, 정지하는 것에 일정한 수가 없는 脈狀이며, 代脈은 遲數에 관계없이 일정한 박동수에 정지하는 脈狀이다.

【國譯】

心悸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편안하지 않는 것이다. 이 證候에는 두 가지가 있으

니 하나는 氣虛로 인한 것이요, 하나는 停飲으로 인한 것이다. 氣虛로 인한 것은 陽氣가 안에서 虛弱하여 가슴속이 텅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이고, 또한 汗法과 下法을 쓴 後에 正氣가 안에서 虛한 것도 心下悸가 생기니 氣虛로 인한悸보다 심한 것이므로 마땅히 氣虛로 인한悸證의 治療방법을 따른다. 停飲으로 인한 것은 과다하게 물을 마셔서 心下에 쌓이면 心火는 물을 두려워하므로 능히 안정하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니 治法은 반드시 먼저 水氣를 분리해야 한다. 비록 餘邪가 있으나 또한 먼저 두근거리는 것을 치료해야 水氣가 흩어져서 다른 病證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傷寒 2,3일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답답한 경우는 小建中湯을 투여한다.<sup>31)</sup> 傷寒論에 ‘먼저 煩證이 있고 뒤에 悸證이 있는 것은 熱證이요 먼저 悸證이 있고 뒤에 煩證이 있는 것은 虛證이니 마땅히 建中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太陽病에 小便이 잘 나오는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신 까닭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니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을 투여하고, 小便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랫배가 당기니 猪苓湯을 투여한다.

陽明病에 심한 熱이 往來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小便이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이 발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太陽病을 과다하게 發汗하여 환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부둥켜안고 두근거리려 누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桂枝甘草湯을 투여한다.<sup>32)</sup>

發汗後에 배꼽아래가 퍼떡 뛰는 것은 奔豚이 발작하려는 것이니 茯苓桂枝甘草大棗湯을 투여한다.<sup>33)</sup>

太陽病을 發汗하였는데 풀리지 않아 熱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피부가 파르르 떨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眞武湯을 투여한다.

31)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14. “傷寒二三日 心中悸而煩者 小建中湯主之”

32)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9. “發汗過多 其人叉手自冒心 心下悸欲得按者 桂枝甘草湯主之.”(64)

33) 張啓基외.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9. “發汗後 其人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主之”

少陽病에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빨개지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함부로 汗法과 下法을 쓰면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니 小建中湯을 투여하고, 熱이 있는 경우에는 小柴胡湯을 투여한다.

少陰病에 四肢가 逆冷하고 두근거리는 경우에는 四逆散에 桂枝를 加하여 투여하고, 心下에 水氣가 있어서 厥證이 있으면서 두근거리는 경우에는 먼저 水氣를 다스려야 하니 茯苓甘草湯을 투여하고, 치료하지 않아 水氣가 胃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小便을 잘 보지 못하게 된다.<sup>34)</sup>

傷寒에 脈이 結代하고 가슴이 심하게 뛰는 경우에는 炙甘草湯을 투여한다.<sup>35)</sup>

#### 【考察】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이 『傷寒論』에는 ‘茯苓桂枝甘草大棗湯’으로 되어 있는데, 傷寒 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頭眩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爲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主之.(67)과 發汗後 其人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 主之.(65)의 내용을 살펴볼 때 茯苓桂枝甘草大棗湯으로 하는 것이 옳다.

또한 ‘眞武湯’이 『傷寒論』에는 ‘茯苓桂枝白朮甘草湯’으로 되어 있는데, 傷寒 若吐 若下後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頭眩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爲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主之.(67)의 조문에서 發汗則動經 身爲振振搖者는 중간 插入文으로 心下逆滿 氣上衝胸 起則頭眩 脈沈緊이 茯苓桂枝白朮甘草湯이고, 이 證을 發汗하면 經脈으로 水氣가 흘러 들어가 요동하고 몸이 흔들거리니 이러한 경우에 眞武湯을 사용해야 하니 여기에서는 振振欲擗地의 내용이 있으므로 眞武湯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 IV. 考察 및 結論

34)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43. “傷寒 厥而心下悸者 宜先治水 當服茯苓甘草湯 却治其厥 不爾 水漬入胃 必作利也”

35) 張啓基의. 傷寒論手冊. 重慶. 科技文獻出版社. 1984. p.

24. “傷寒脈結代 心動悸 炙甘草湯主之.”

이상과 같이 陶華의 傷寒明理續論 證語 등에 대한 內容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證語와 鄭聲에 대하여 邪氣가 盛하면 證語하고 正氣가 奪하면 鄭聲한다고 하고, 證語의 原因에 따라 亡陽으로 인한 것에는 柴胡桂枝湯을, 火劫이나 燥屎로 인한 것에는 承氣湯을, 瘀血이나 血熱로 인한 것에는 犀角地黄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2. 小便不利의 通治方으로 五苓散을 제시하고 發黃이 겹쳤을 때는 茵陳을 가하여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3. 小便自利하면 津液이 소모되므로 반드시 大便硬하니, 太陽病에서 心下悸하는 경우는 苓桂朮甘草湯을 사용하고, 自汗 四肢拘急 微惡寒 脚攣急한데 잘못 發汗하여 厥逆이 발생한 경우에는 甘草乾薑湯 甘草芍藥湯을 사용하고, 陽明病의 脾約에는 麻子仁丸을 사용하고, 少陰病의 虛寒證에는 四逆湯 眞武湯을 사용한다고 제시 하였다.

4. 舌苔가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丹田에는 熱이 있고 胸中에는 寒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邪氣가 表에 있으면 舌苔가 없고, 邪氣가 裏에 있어서 津液을 결박하면 舌上에 苔가 생기면서 滑하고, 熱氣가 점점 깊어지면 舌苔가 燥澀해지고, 熱이 胃部에 모이면 舌苔가 黃色이며, 熱이 심하여 위독하면 黑苔가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5. 咽痛에서 咽喉가 不利하고 或 아프거나 或 가려워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모두 毒氣가 上衝한 까닭이라 하고, 少陰 咽痛에는 證에 따라 桔梗湯 豬膚湯 半夏散 通脈四逆湯 苦酒湯을 사용하고, 陽毒으로 인한 咽痛에는 烏扇湯(射干湯) 升麻六物湯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6. 衄血은 經絡에 熱이 盛하여 衄血받은 血이 妄行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太陽病에는 犀角地黄湯 茅花湯 黃芩湯을, 陽明病에는 黃芩芍藥湯 竹葉石膏湯을, 少陰病에는 當歸四逆湯 黑錫丹을 사용하거나 太谿三陰交 湧泉에 뜸을 떠야한다고 제시하였다.

7. 吐血은 陽經이 熱邪를 받아 邪氣가 表에 있는데

마땅히 發汗할 것을 發汗하지 않아 熱毒이 臟으로 들어 내부에 쌓여 발생한다고 보고, 血熱로 인한 것은 黃連阿膠湯 地榆栝皮湯 三黃瀉心湯을 사용하고, 火劫으로 인한 것은 救逆湯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8.心悸의 원인을 氣虛와 停飲으로 보고, 氣虛에는 小建中湯 桂枝甘草湯 炙甘草湯을 사용하고, 停飲에는 茯苓桂枝白朮甘草湯 豬苓湯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13. 吳謙 등. 醫宗金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4.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影印. 1976.
15.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3.
16. 陶華. 傷寒全生集. 서울. 醫聖堂. 影印本.

## 參考文獻

### <단행본>

1. 鄒澍. 本經疏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傷寒明理論. 서울. 大成文化. 影印. 1989.
4. 成戊己 註解. 仲景全書註解傷寒論. 서울. 大成文化. 影印. 1989.
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6. 章楠. 醫門棒喝上. 서울. 大成文化社 影印. 1989.
7. 張仲景. 古本 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8. 朱肱. 增註南陽活人書. 서울. 三和精版社. 1987.
9. 喻嘉言. 醫門法律上. 서울. 東南出版社 影印. 1986.
10. 蔡仁植 譯. 金匱要略精解.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6.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4.